

리뷰-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명작시리즈'

명화에 가슴 뭉클...라틴 선율에 매혹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지난달 29일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 공연이 펼쳐졌다. 콘서트 가이드 안인모(왼쪽)와 라틴 재즈그룹 '라틴팩토리'의 모습.

룸바 리듬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은 어느새 남미의 해안가로 변한다. 끈적한 바닷바람, 짙어가는 파도소리. 한켠에서는 커피 농장 노동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원두를 갈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 상반기 마지막 공연은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해방웨이의 쿠바로 안내했다.(해방웨이는 말년에 쿠바에서 머물며 작품을 창작했다.) '노인과 바다'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무대는 명작을 중심으로 프리다 칼로의 강렬한 명화, 라틴 특유의 열정적인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공연을 이끈 피아니스트 안인모는 "그대, 시지프스여"라는 인사와 함께 하나의 신화를 무대 위로 불러냈다. 신을 기만한 죄로 바위를 산 위로 굴림 없이 밀어 올리는 벌을 받는 시지프스의 이야기.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찢기고 뜯기며 살아가는 현대의 시지프스들에 대한 연민, 용기에 대한 찬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공연은 해방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따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막 '84일'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날들, 2막 '육체적 장애'는 인간의 한계와 고통, 3막 '청서지와 상어떼'는 생존을 향한 사투, 4막 '인생이여 만세'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을 향한 찬가를 담았다.

불굴의 의지와 치열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무대와 함께 소개되며 메시지를 더욱 깊이있게 전했다. 프리다는 소아마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의 격렬한 사랑과 갈등 속에서도 그림으로 삶을 적시하고자 했던 화가다. '상처입은 사슴', '마리카락을 자른 자화상' 등 자전적인 그림들이 스크린에 투사되며,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그녀의

'노인과 바다' 주제 4개의 장
프리다 칼로 자전적 그림 스크린에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삶 '울림'

라틴 재즈 그룹 '라틴 팩토리'
특유의 감성·리듬에 관객들 몰입
25일 '보바리 부인'...하반기도 계속

생이 관객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이날 무대의 열기를 더한 건 라틴 재즈 그룹 '라틴 팩토리'였다. '모리엔도 카페', '베사메 무초', '관타나모의 여인' 등 라틴 특유의 감성과 리듬이 살아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프리다 칼로가 생의 마지막에 남긴 작품 '비바 라비다(인생이여 만세)'에서 영감을 받은 콜드플레이의 동명곡을 라틴풍으로 재해석해 연주하기도 했다.

인기 시리즈답게 이번 공연 역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관객들이 부모와 함께 객석을 채우며 특별한 문화 체험의 장을 이뤘다. 미리 '노인과 바다'를 읽고 온 아이들은 공연 중간 안인모 가이드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들어 대답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윤도경(12)·도담(10) 남매도 그중 하나였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나와서 재미있었어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들으니 책의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명작시리즈 공연은 상반기 광주예술의전당에서 가장 인기있는 기획 공연 중 하나였다. 상반기 4개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하반기 공연에도 관심이 뜨겁다.

공연을 이끌어온 안 씨는 "한 학부모 독서 모임에서 다섯 명이 관람을 왔다가, 다음 달에는 자녀들까지 스물 두 명이 함께 왔던 적도 있었다"며 "문학, 음악, 미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즐겨주시는 광주시민들의 몰입에 매 순간 뭉클함을 느낀다"고 감사를 전했다.

안 씨는 클래식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가이드'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을 사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지난해 그림과 클래식을 엮어 쓴 책 '루브르에서 쇼팽을 듣다'가 토대가 됐다.

그는 "작가가 깊이 사유하며 써 내려간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삶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좀 더 인간답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명작시리즈에는 소중한 삶을 하루루 낭비하지 않고 깊이 있게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명작시리즈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질어가는 가을,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5일 귀스타브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을 비롯해 '위대한 개츠비' (9월 23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0월 28일), '안나 카레니나' (11월 25일) 등이 이어진다.

안 씨는 "공연 이후 명작시리즈 책으로 독서 모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런 '삶의 변화'를 기대해왔다는 점에서 가슴이 벅찼다"며 "명작을 가까이하면 자연스레 삶에도 여유와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작시리즈가 있는 광주가 문학소녀와 문학소년의 도시로 소문이 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슬아슬 광대 걸음에 무더위는 휘이~

국립남도국악원 9일 진도 진악당 국악그룹 충전소 '연희에 물들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이전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흥겨운 장단에 맞춰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익살스러운 입담이 어우러진다. 줄 위에 선 광대가 한발짝 걸을 때마다 격정과 시름은 멀리 날아간다. 전통연희의 매력을 담은 한판 줄타기 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국악그룹 충전소 초청공연 '연희에 물들다'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일환으로, 전통 연희와 음악, 줄타기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극이다. '더불어 즐기고, 더불어 즐거운 전통 연희 한마당'을 주제로 다채로운 전통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길놀이와 성격을 지닌 '문굿'으로 막을 올리고, '태평소 시나위', 판소리 '적벽가'의 '자웅 할 쏘는 대목'으로 전통음악의 깊은 맛을 전한다.

하이라이트는 '줄타기 신동'으로 알려진 남창동

의 무대다. 공중에 걸린 줄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발놀림과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해학이 가득한 퍼포먼스는 전통 줄타기의 정수를 보여준다. 남창동은 판소리 명창 남해웅의 아들로, 서양의 슬랙라인과 비보잉, 기계체조까지 섭렵하며 줄 위에서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연희꾼이다.

무대의 마지막은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판굿'이 장식한다.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무대에서 관객들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여름의 더위를 날릴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관람객들을 위해 진도읍사무소·고군면 장등문화센터 등에서 국립남도국악원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또 12월까지 상설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진행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흔들리며 사는 이들을 위한 헌사

순천 출신 문정서 시인, 시집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 펴내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

다소 낭만적으로 보이는 시집의 제목이 눈길을 끈다. 휴가철과 맞물려 가볍게 읽을 수 있으려니 생각할 수 있다.

순천 출신 문정서 시인의 시집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 (상상인)는 낭만의 여름을 담고 있지 않다. 예의 없이 올 여름도 폭풍과 폭우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재앙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집은 약자들에게 대한 사유와 시를 쓰는 궁극적인 지향을 담고 있어 묵직하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흔들리며 사는 이들을 위한 헌사'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파스한 애정의 눈길을 건넨다. 차분한 응시 이면에 드리워진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연민은 깊고 아련하다. 문 시인은 시를 쓰는 본질적인 이유를 상처 입은 존재들에 대한 대언과 공감에 두는 듯하다.

"흐른다는 것은 생의 힘을 조금 빼는 것/ 빗물을 털고 날개 펼쳐 홀출 날아가렴" ('홀러가는 새' 중)의 구절이나, "일생은 간데없이 죽어서도 아름다워라/ 겨울의 드라이플라워" ('꽃 화장' 중) 같은



표현은 화자가 응시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시에서 낮고 연약한 생명이 나뭇잎은 작지만 의미있는 주체로 재생된다.

"사과, 억울하지만/ 이름을 빌려주기로 한다/ 동그랗고 빨강고 탐스러워/ 베어 물기도 아까운데/ 온갖 난처한 일의 해결사/ 그래/ 이름 한번 빌려주자"

'사과를 삼은 이유'의 일부분이다. 작품 속 '사과'는 과일로서의 존재보다는 억울한 일을 오롯이 담당하는 희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 입 '베어 물기도' 아깝지만 세상의 굶은일과 거추장스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을 대변하는 사과의 위대함을 노래한다.

한편 전남문인협회 회원인 문 시인은 2025년 전남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를 받았으며 전남백일장 장원을 수상했다. 순천대 평생교육원 시장작반 시우림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